

英語音韻論序說(Ⅱ)

田 相 範

2. 非循環規則

2.1: 母音의 對應

다음에, 작으로 묶어 놓은 單語들을 비교해 보자.

- (129) a. *divine—divinity*
derive—derivative
sublime—sublimity
line—linear
- b. *serene—serenity*
meter—metris
appeal—appellative
extreme—extremity
- c. *profane—profanity*
explain—explanation
sane—sanity
grateful—gratitude

이 짝들은 왼쪽 것들이 緊張母音을, 그리고 오른쪽 것들이 반대로 弛緩母音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에서, 이들은 그 表面的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基底母音에서 導出된 것이 아닐까하는 의심을 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좌우 짝의 차이는 音韻의 環境의 차이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만약 (129a, b, c)에 열거한 單語들이 각각 동일한 基底母音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위해 우리는 (129)의 單語들을 더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그 결과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게 된다. 첫째, 문제의 모습들은 왼쪽 單語들에서는 모두 마지막 音節에 와 있다. 둘째, 이 문제의 母音들에는 모두 強勢가 와 있다는 사실이다. 이 자리에서 強勢를 갖는다는 것은 (56b)에서 본대로 그것이 [+tense]의 資質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129)에 짝지어 놓은 것 중 오른쪽 單語들은 모두 뒤에서 세 번째 音節에 強勢가 주어졌는 바, 이 자리에서 強勢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強勢規則들에 의거, 반드시 [-tense]의 資質을 가질 필요는 없다. 다시 말해, 어떤 母音이 그 뒤에 두개 이상의 音節이 뒤따를 때, 그 母音이 基底에서는 [+tense]를 가졌더라

도 [-tense]로 바뀐다는 規則이 있다면 (129)의 짝들은 왼편 것이 緊張度(tenseness)에 관한 한, 보다 基底에 가깝다는 결론이 된다.

이 경우 그 基底形을 각각의 表面形에 나타나는 母音으로 잡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129a, b, c)의 짝들의 오른쪽 것들을 導出하기 위해 (130)과 같은 規則이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130) \begin{bmatrix} \text{āy} \\ \text{īy} \\ \text{ēy} \end{bmatrix} \rightarrow \begin{bmatrix} \text{i} \\ \text{e} \\ \text{æ} \end{bmatrix} / \dots$$

우리는 첫눈에 이 規則이 매우 복잡하여, 辨別的 資質을 가지고서는 나타내기 곤란하며, 따라서 一般性도 포착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規則 (130)을 몇 단계로 나누어야 하는데, 그 각 단계는 매우 간단하며 一般性을 가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각 단계가 무엇인가를 알아보기에 앞서 우선 다음 예들을 보자.

- (131) a. *vary*—*variety*
impious—*piety*
sociology—*society*
 b. *funeral*—*funereal*
manager—*managerial*
brevity—*abbreviate*
 c. *algebra*—*algebraic*
Canada—*Canadian*
gymnastic—*gymnasium*

(131)에 짝지어 놓은 單語들에서 문제되는 母音들의 대립은 결국 (132)의 대립이다.

- (132) (a) *īy/i*—*āy*
 (b) *ə/e*—*īy*
 (c) *ə/æ*—*ēy*

우선 (131a)부터 살펴보면, 우리는 *vary*의 마지막 母音이 音聲적으로 緊張母音인 [īy]이지만, 基底에서는 [-tense]의 資質을 가질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 반대인 [+tense]를 가졌다면, 그 表面形은 **vary*¹가 되었을 것이다. 이 單語의 마지막 音節의 基底母音은 /i/였을터인 바, 이것이 規則 (121)에 의해 緊張母音化했을 것이고, 그 뒤의 轉移音 [y]는 緊張母音 때문에 생겼을 것이다. 그렇다면 (132a)의 基底母音은 /i/가 된다.

한편 (131b)의 *manager*는 마지막 音節이 強勢를 갖지 않는 것으로 보아, 마지막 音節은 基底에서 [-tense]의 資質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manager*나 *funeral*의 문제의 母音이 [ə]가 된 것은 母音弱化規則 (119)에 의한 것이다. (129b)에서 *serene*—*serenity*에서의 *īy*—*e*

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131b)의 基底母音은 /e/일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31c)에 있어서는 *algebra*의 마지막 母音이 [ə]로 弱化되었으므로, 그것은 基底에서 [+low]의 資質을 가졌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 않고 [-low]의 資質을 가졌더라면, 規則(121)에 의해 緊張母音化했을 것이다. 동시에 이 母音은 強勢가 오지 않았으므로 [-tense]의 資質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algebraic*의 경우를 보면, 이 母音이 前舌母音이며 또 非圓唇母音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æ/밖에 다른 것이 없다.

이처럼 (131a, b, c)의 基底母音을 각각 /i/, /e/, /æ/로 잡고 보면, (131)의 짝지어 놓은 오른쪽 單語들을 導出하기 위해서는 (133)과 같은 規則이 필요하다.

$$(133) \begin{bmatrix} i \\ e \end{bmatrix} \rightarrow \begin{bmatrix} \text{äy} \\ \text{iy} \\ \text{ëy} \end{bmatrix} / \dots$$

規則 (133)은 規則 (130)의 정반대의 효과를 가지며, 規則 (130)을 資質을 사용하여 規則化할 수 없었듯이, 規則 (133)도 規則化할 수 없으며, 規則 (130)이 어떤 一般性도 포착하지 못하였듯이, 規則 (133)도 一般性을 포착하지 못한다. 또한 規則 (130)을 몇개의 단계로 나누어야 하듯이, 規則 (133)도 몇개의 단계로 나누어야 한다.

後舌母音의 경우는 어떠한가. 우선 (134)의 예들을 보자.

- (134) a. *profound—profundity*
pronounce—pronunciation
 b. *cone—conic*
verbose—verbosity
 c. *produce—production*
reduce—reduction

(134)가 보여주는 對應은 (135)로 나타낼 수 있다.

- (135) a. äw—Λ
 b. öw—ā
 c. yūw—Λ

(135)의 경우에는 緊張도에 관한 한, 왼쪽 것이 보다 基底母音에 가깝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134a)의 *pronounce*는 그 둘째 母音이 強勢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아 [-tense]일 수 없으나, *pronunciation*의 둘째 母音은 基底에서는 [+tense]여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134b)에서는 *conic*에 [ā]가 나타나지만, 이것은 다음 (136)의 원편에도 나타나며, 그것에 對應하는 오른쪽에서는 [ə]로 실현되고 있다.

- (136) *reciprocity—reciprocal*
demonic—démon
frivolity—frivolous

(136)으로 미루어 보아, [ā]는 強勢規則이 적용되는 단계에서는 [-tense]의 資質을 가지고 있었으리라고 짐작된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reciprocal*은 **reciprócal*이 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다른 경우에서 ㅓ를 ā로 바꾸는 規則 (137)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렇다면 (135)는 (138)의 對應으로 볼 수 있다.

$$(137) \text{ㅓ} \rightarrow \left[\begin{array}{l} +tense \\ -round \end{array} \right]$$

- (138) a. āw-Λ
 b. ㅓw-ㅓ
 c. yūw-Λ

우리는 지금까지 기술해 놓은 (130), (132), 그리고 (138)을 비교함으로써 이들의 對應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음을 알게 된다. 첫째, 緊張度에 대한 對應이 있다. 즉 한 쪽은 緊張母音이고, 다른 한 쪽은 非緊張母音이라는 차이가 있다. 둘째, 뒤에 轉移音이 따르거나 따르지 않는 차이가 있다. 셋째, 轉移音이 뒤따르는 二重母音의 첫 요소와 그것에 對應하는 轉移音을 갖지 않는 母音을 비교하면, 音質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divine*의 [āy]와 *divinity*의 [i]의 경우가 그 예이다.

만약에 이들 對應하는 母音들이 같은 基底母音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면, 基底形에서 表面形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 네가지 종류의 規則이 필요하다. 첫째, 基底母音을 어떤 환경하에서 [+tense]로부터 [-tense]로 바꾸는 規則이다. 둘째, 위와는 반대로 基底母音의 [-tense]를 [+tense]로 바꾸는 規則이다. 셋째, 基底母音 뒤에 轉移音을 첨가하는 規則이다. 넷째는 基底母音을 어떤 환경하에서 다른 母音으로 바꾸는 規則이다. 이 規則들을 각기 (139)의 네 이름으로 부르기로 하고, 그것들을 차례로 검토해 보겠다.

- (139) a. 弛緩規則(Laxing Rule)
 b. 緊張化規則(Tensing Rule)
 c. 二重母音化規則(Diphthongization Rule)
 d. 母音推移規則(Vowel Shift Rule)

앞으로 밝혀지겠지만, (139)의 規則들은 모두 獨立的 妥當性을 가지는 英語의 規則들이며, (130)과 (133)의 對應을 이처럼 몇개의 단계로 나누어 導出함으로써,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즉, (130)과 (133)는 서로 무관한, 그리고 정반대되는 과정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母音推移規則은 이들에게 공통된 바가 무엇인가를 말해 줄 것이며, 弛緩規則과 緊張化規則은 이들의 차이점을 말해 줄 것이다.

2.2. 弛緩規則

弛緩規則이란 [+tense]의 資質을 [-tense]로 바꾸는 規則으로서, (130)의 對應을 설명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앞서 (129)의 對應을 설명하면서, 어떤 母音에 強勢가 주어졌을 때 그 뒤에 두개 이상의 音節이 뒤따르면 그 母音이 基底에서는 [+tense]를 가졌더라도 [-tense]로 바뀌는 規則을 전제했었다. 이것을 規則化하면 (140)과 같이 된다.

(140) $V \rightarrow [-tense] / \text{---} C_0 V C_0 V$

그러나 (141)의 경우들은 規則 (140)이 불완전함을 말해주고 있다.

(141) *mountainous*
counterfeit
countenance

(141)이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弛緩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 까닭은 (129)의 경우에서와는 달리, (141)의 경우에는 弛緩이 일어나야 할 母音 뒤에 두개의 子母音이 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142)의 예들은 그와 같은 생각이 옳지 않음을 보여 준다.

(142) *wild+erness*
profund+ity
pronunc+iation

즉, (142)의 경우에는 해당 母音 뒤에 두개의 子音이 뒤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弛緩化가 일어나고 있다. 다만 (142)의 경우에는 (141)의 경우에서와는 달리, 두 子音 뒤에 形態素境界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母音의 弛緩이 일어나는 것은 문제의 母音 뒤에 子音이 하나만 있거나, 아니면 두개의 母音이 오고, 그 뒤에 다시 形態素境界가 오는 경우에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맞춰 規則 (140)을 아래와 같이 고쳐 써야 한다.

(143) $V \rightarrow [-tense] / \text{---} C(C+) V C_0 V$

그러나 (144)의 예들은 다시 (143)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 준다.

(144) *vocátion, vivácity, víváltity*

여기서 첫째 母音들이 弛緩母音이 되지 않는 것은, 그 뒤에 強勢가 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맞추어 規則 (143)은 다시 (145)처럼 고쳐 써야 한다.

(145) $V \rightarrow [-tense] / \text{---} C(C+) \left[\begin{array}{c} V \\ \text{---stress} \end{array} \right] C_0 V$

한편 (134b)의 *cone—conic*의 對應과 (146)의 예들은, *-ic* 앞에서도 弛緩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146) *satire*—*satiric*
- meter*—*metric*
- volcano*—*volcanic*
- tone*—*tonic*

우선 이 현상만을 위해 우리는 (147)과 같은 規則을 생각할 수 있다.

$$(147) V \rightarrow [-tense] / \text{---} C_0 + ik$$

한편 (148)의 예들은 母音의 弛緩이 일어나는 *-ic* 앞에서뿐만 아니라 *-id*, *-ish* 앞에서도 일어남을 알 수 있다.

- (148) a. *pallid* (*pale*)
- florid* (*flower*)
- b. *Spanish* (*Spain*)
- finish* (*final*)

(148)에 주어진 弛緩母音을 가진 단어들이 각기 괄호 속에 주어진 단어들을 基底形으로 하여 얻어진 것이라면, 마땅히 (149)와 같은 規則이 필요할 것이다.

$$(149) V \rightarrow [-tense] / \text{---} C_0 + i \left[\begin{matrix} d \\ \text{ʒ} \end{matrix} \right]$$

(149)는 (147)과 縮約될 수 있으며, 그 결과 (150)과 같은 規則을 얻게 된다.

$$(150) V \rightarrow [-tense] / \text{---} C_0 + i \left[\begin{matrix} k \\ d \\ \text{ʒ} \end{matrix} \right]$$

그런데 과연 (150)과 같은 規則이 英語에 필요한가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선 (147)의 경우부터 살펴보자. 우리는 *satire*나 *meter*의 경우, *satiric*과 *metric* 외에도 *satirical*과 *metrical*과 같은 交替形이 있음을 알고 있다. 따라서 *satiric*의 基底形이 /satir+ik+æ/ 이라고 하고, +al이 나중에 削除된다고 한다면, 規則 (150)의 도움없이 規則 (145) 하나만으로 弛緩母音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이같은 분석이, 弛緩母音을 얻기 위해 만족스러울뿐만 아니라, 만족스러운 強勢를 얻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문제는 *-al*의 削除가 일정치 않다는 사실이다. 즉 **basical* 같은 단어는 없으므로 *basic*, *public*, *conic* 등에 대해서는 의무적이며, **theatric* 따위의 단어는 없으므로 *theatrical*, *neurological* 등에는 적용되서는 안되며, *economic(al)*, *historic(al)* 따위에는 뜻에 따라 適用與否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再調整規則인 *-al*削除規則을 音韻規則 뒤에 적용해도 괜찮은가 하는 문제이다.

規則 (149)도 마찬가지로 의심스러운 規則이다. 우선 (148)의 對應이 보여주는 관계는,

(129)의 對應이 보여주듯 밀접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151)의 예들이 보여주듯이, 단어 내부에 形態素境界를 갖지 않더라도 *-id*나 *-ish*로 끝나는 말들은 거의 예외없이 이들 語尾 앞에 弛緩母音を 가지고 있다.

- (151) a. *acid, rapid, placid, solid*
 b. *radish, abolish, establish, relish*

그렇다면 이것들은 音韻規則이 아니라 剩餘規則으로 설명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規則 (150)을 독립한 英語의 規則으로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움을 알게 되었다.

(152)에 열거한 단어들이 規則 (145)의 예외들이다.

- (152) *obesity, hibernate, isolate*
scenic, basic, cyclic
rotary, decency, primary

2.3. 緊張化規則

(131)의 예들을 다시 한번 보자. 우선 (131a)의 *vary—variety*의 對應에서 우리는 *vary*의 母音を 이 基底母音으로 잡아야 했다. *Vary*의 마지막 母音은 表面에서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基底에서는 [-tense]의 資質을 가져야 했다. 왜냐하면 *vary*가 表面에서와 마찬가지로 基底에서도 [+tense]를 가졌다면 **varý*와 같은 잘못된 強勢形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Vary, various, variety*가 모두 그 語幹이 같은 基底母音 /i/를 가졌다고 할 때, *vary*의 마지막 母音이 緊張化하는 것은 앞서 제시된 規則 (66)에 의해 얻어질 수 있는 바, 規則 (66)을 다시 되풀이하면 아래와 같다.

$$(66) V \rightarrow [+tense] / \left[\begin{array}{c} \alpha \text{ low} \\ \beta \text{ stress} \end{array} \right] \left\{ \begin{array}{c} V \\ \# \end{array} \right\} \quad \begin{array}{l} (a) \\ (b) \end{array}$$

: $\beta = +$, if $\alpha = +$

規則 (66)이 말해주는 바는 두가지다. 첫째, 語尾의 弛緩母音은, 그것이 強勢가 없는 非低母音이거나 強勢가 오는 低母音일 때, 이들이 다른 母音 앞에 오면 緊張化한다. 둘째, 이같은 母音들이 語尾에 오면 緊張化한다. (153)과 (154)의 예들이 각기 이 두가지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 (153) *society, neophyte, archaic, algebraic, heroic*
 (154) *buffalo, volcano, fiasco, macaroni, radio, embargo*

規則 (66)에 의해 우리는 *vary*와 *variety*의 두 緊張母音を 導出할 수 있다.

다음 (131b)의 경우는 어떠한가. *Manager—managerial, funeral—funereal*의 對應을 볼 때, 緊張母音을 가진 派生形으로 미루어 보아, 이들의 基底母音은 /e/여야 한다. 이 두 對應을 볼 때, 緊張化는 주어진 母音 뒤에 하나의 子音이 오고, 그 뒤에 i나 e가 뒤따르고, 다시 그 뒤에 母音이 오는 경우에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을 規則化하면 (155)와 같이 된다.

$$(155) V \rightarrow [+tense] / \text{---} C \begin{bmatrix} V \\ -low \\ -back \\ -cons \\ -stress \end{bmatrix} V$$

끝으로 (131c)의 경우를 보자. *Algebra—algebraic*의 對應에서 *algebra*의 마지막 母音은 거기에 強勢가 없는 것으로 보아, 基底에서 [-tense]의 資質을 가지며, 또 [ə]로 弱화된 것으로 보아, [+low]의 資質을 가짐을 알 수 있다. 한편 *algebraic*에서의 이 母音의 表面形으로 미루어 보아 $\begin{bmatrix} -back \\ -round \end{bmatrix}$ 의 資質을 가졌을 것으로 짐작되며, 그렇다면 그 基底形은 /æ/일 것이다. *Algebraic*의 緊張母音은 規則 (66a)에 의해서, *Canadian*의 緊張母音은 規則(155)에 의해 얻어질 수 있다. 이 밖에도 *abbreviate, Arabian, harmonious, collegiate, marginalia* 등에서 보는 緊張母音들은, 規則 (155)에 의해 導出해 낼 수 있다.

그런데 (156)의 예들은 規則 (155)에 아직도 수정의 여지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156) *reptilian, punctilious, Darwinian, vicious*

(156)의 예와 (131a)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 基底母音 /i/가 緊張母音化 하는 것은 *vary*나 *variety*의 경우에서와 같이, 規則 (66)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따라서 規則 (155)는 非高母音에만 적용되도록 (157)처럼 수정할 필요가 생긴다.

$$(157) V \rightarrow [+tense] / \left[\overline{\text{---}} \right] C \begin{bmatrix} V \\ -low \\ -back \\ -cons \\ -stress \end{bmatrix} V$$

規則 (66)과 規則 (157)을 中괄호規約을 사용하여 (158)처럼 縮約할 수 있다.

$$(158) V \rightarrow [+tense] / \left\{ \begin{array}{l} \left[\begin{array}{l} \overline{\alpha \text{ low}} \\ \beta \text{ stress} \end{array} \right] \left\{ \begin{array}{l} V \\ \# \end{array} \right\} : \beta = + \text{if} \\ \alpha = + \end{array} \right. \quad (a) \\ \left[\overline{\text{---}} \right] C \begin{bmatrix} V \\ -low \\ -back \\ -cons \\ -stress \end{bmatrix} V \quad (b) \end{array} \right.$$

2. 4. 二重母音化規則

二重母音化는 緊張母音에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英語의 현상이다. [i]나 [e] 뒤에서는 [y]

가, [ū]나 [ō] 뒤에 [w]가 삽입되는 현상을 말하며, (159)처럼 規則化 할 수 있다.

$$(159) \phi \rightarrow \left[\begin{array}{l} -\text{voc} \\ -\text{cons} \\ +\text{high} \\ \alpha \text{ back} \\ \alpha \text{ round} \end{array} \right] / \left[\begin{array}{l} +\text{tense} \\ \alpha \text{ back} \end{array} \right] \text{---}$$

規則 (159)는 弛緩規則 (150)이나 緊張化規則 (158)보다 뒤에 적용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規則 (159)는 基底에서는 [-tense]의 資質을 갖고 있었더라도, 緊張化規則 (158)에 의해 [+tense]의 資質을 갖게 되면 二重母音化하기 때문이다. 이미 보아온 바와 같이, vary (/væri/)의 /i/는 基底的으로는 [-tense]이지만, 緊張化規則에 의해 [+tense]의 資質을 갖게 되고, 따라서 二重母音化規則이 적용하여 [væriy]의 表面形을 갖게 된 것이다.

반면 설사 基底에 [+tense]의 資質을 가지고 있더라도, 補助弱化規則 (128)이나 弛緩規則 (150)에 의해 [-tense]의 資質을 갖게 된 것은 二重母音化하지 않는다. *Explanation, pronunciation, repetition, revelation* 등의 두번째 母音들은 *explain, pronounce, repeat, reveal* 등에서 볼 수 있듯, 基底에서는 [+tense]의 資質을 가지지만, 각기 補助弱化規則과 弛緩規則에 의해서 [-tense]로 바뀌었기 때문에 二重母音化規則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5. 母音推移規則

우리는 앞서 (129), (131), (134)의 자료를 설명하기 위해 (139)에 열거한 네개의 規則이 필요함을 보았고, 그 중 세개의 規則을 살펴 보았다. 한편 (129)와 (134)의 對應形은, 對應하는 母音이 基底에서는 緊張母音일 것이라는 사실도 알아보았다. 이제 마지막 남은 작업은, 다음과 같은 母音推移를 規則化하는 일이다.

$$(160) \begin{array}{cccccc} \text{ī} & \text{ē} & \text{æ} & \text{ū} & \text{ō} & \text{ɔ} \\ \downarrow & \downarrow & \downarrow & \downarrow & \downarrow & \downarrow \\ \text{æ} & \text{ī} & \text{ē} & \text{ɔ} & \text{ū} & \text{ō} \end{array}$$

(160)이 앞으로 어떻게 規則化되든, 그 規則은 (161A)에 열거한 基底形에 적용하여 (161B)와 같은 表面形을 導出해 낼 것이다. 물론 (161A)의 해당 基底母音들이 二重母音化規則 (159)를 만족시키므로, 基底母音의 前後舌의 구별에 따라, [y]나 [w]가 緊張母音 뒤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161)	A	B	
	/divīn/	[divāyn]	'divine'
	/serēn/	[sirīyn]	'serene'
	/profæn/	[profēyn]	'profane'
	/lūd/	[lāwd]	'loud'
	/pōl/	[pūwl]	'pool'
	/gōl/	[gōwl]	'goal'

(/divīn/→[divāyn], /lūd/→[lāwd]를 위해서는 母音推移規則외에 또 다른 規則의 적용이 필요하다.)

우선 (160)의 母音推移를 (162)처럼 規則化 할 수 있다.

$$(162) \left[\begin{array}{c} V \\ +tense \end{array} \right] \rightarrow \left\{ \begin{array}{l} [-\alpha \text{ high}] / \left[\begin{array}{c} \alpha \text{ high} \\ -\text{low} \end{array} \right] \\ [-\beta \text{ low}] / \left[\begin{array}{c} \beta \text{ low} \\ -\text{high}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 \begin{array}{l} (a) \\ (b) \end{array}$$

(162a)는 非低母音에 적용하여 高母音은 非高母音으로, 非高母音은 高母音으로 바꾼다. 즉 (163)과 같은 구실을 한다.

$$(163) \begin{array}{cccccc} \bar{i} & \bar{e} & \bar{æ} & \bar{u} & \bar{o} & \bar{ɔ} \\ \downarrow & \downarrow & \downarrow & \downarrow & \downarrow & \downarrow \\ \bar{e} & \bar{i} & - & \bar{o} & \bar{u} & - \end{array}$$

한편 規則 (162b)는 (163)의 非高母音에 적용하여 [low]의 값어치를 바꿔 놓는다. (164)가 (161)을 설명해주고 있다.

$$(164) \begin{array}{cccccc} \bar{i} & \bar{e} & \bar{æ} & \bar{u} & \bar{o} & \bar{ɔ} \\ \downarrow & \downarrow & \downarrow & \downarrow & \downarrow & \downarrow \\ \bar{i}y & \bar{e}y & \bar{æ}y & \bar{u}w & \bar{o}w & \bar{ɔ}w & (159) \\ \downarrow & \downarrow & \downarrow & \downarrow & \downarrow & \downarrow \\ \bar{e}y & \bar{i}y & - & \bar{o}w & \bar{u}w & - & (162a) \\ \downarrow & \downarrow & \downarrow & \downarrow & \downarrow & \downarrow \\ \bar{æ}y & - & \bar{e}y & \bar{ɔ}w & - & \bar{o}w & (162b) \end{array}$$

우리는 앞서 (161)에서 /divīn/에서 [divāyn]을, 그리고 /lūd/에서 [lāwd]를 生成하기 위해서는 規則 (162)만으로는 충분치 않음을 지적한 바 있다. /i/와 /u/에 (162)를 적용해서 얻어진 [æy]와 [ɔw]를 각각 [āy]와 [āw]로 바꿔야만 한다. 우선 [ɔw]→[āw]를 위해서는 規則 (165)가 필요하다.

$$(165) \left[\begin{array}{c} V \\ +back \\ +low \end{array} \right] \rightarrow [-round]$$

한편 [æy]→[āy]를 위해서는 規則 (166)이 필요하다.

$$(166) \left[\begin{array}{c} V \\ +low \end{array} \right] \rightarrow [+back] / - \left[\begin{array}{c} -voc \\ -cons \end{array} \right]$$

規則 (166)에 의해 /y/나 /w/앞의 [æ]나 [ɔ]가 [a]나 [ɔ]가 된다. 規則 (166)이 [æ]뿐만 아니라 [ɔ]까지도 後舌母音化해야 하는 이유는 뒤에 밝혀질 것이다.

規則 (162)를 자세히 검토해보면, 아직도 완전치 않음을 알 수 있다. 우선 *father*, *Chicago* 등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規則 (162)는 /ā/에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162)의 적

용을 받는 母音들을 (160)에서 다시 검토해보면, 이들 모두가 [back]과 [round]의 값어치가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前舌母音은 모두 非圓唇母音이고, 後舌母音은 모두 圓唇母音이다. 따라서 規則 (162)는 (167)에 규정된 母音에만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167) \begin{bmatrix} r \text{ back} \\ r \text{ round} \end{bmatrix}$$

다음에 規則 (162)에 수정을 가해야 할 필요성은 *various, variety* 같은 예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두 단어를 生成하는 과정에 우리는 [væri+ɔs]와 [væri+i+ti]와 같은 中間導出形을 갖는다. 이들에서 볼 수 있는 세계의 [i] 가운데서 強勢를 받는 [i]만이 規則 (162)의 작용을 받는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規則(162)는 (168)과 같이 수정해야 한다.

$$(168) \begin{bmatrix} r \text{ back} \\ r \text{ round} \end{bmatrix} \rightarrow \left\{ \begin{array}{l} [-\alpha \text{ high}] / \begin{bmatrix} \alpha \text{ high} \\ -\text{low} \end{bmatrix} \\ [-\beta \text{ low}] / \begin{bmatrix} \beta \text{ low} \\ -\text{high} \end{bmatrix} \end{array} \right\} / \begin{bmatrix} +\text{tense} \\ +\text{stress} \end{bmatrix}$$

強勢가 없는 母音은 [ə]로 弱화된다.

영어에는 세계의 二重母音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즉 [äy], [æw], [ɔy]의 셋이다. 이 가운데서 [äy]와 [æw]는 지금까지 보아온 대로 각각 基底母音 /i/와 /ü/에 여러 規則을 적용하여 導出하였다. 만약에 [ɔy]를 基底形 /ɔy/에서 導出한다면 英語에는 /ɔy/하나 때문에 語彙目錄에 VG의 결합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반대로 [ɔy]를 [äy]나 [æw]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떤 單母音에서 導出한다면 英語의 語彙目錄엔 VG의 결합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表面形 [ɔy]의 基底母音은 어떤 音이 될 것인가? 첫째로, 끝이 轉移音으로 끝나고 있으므로 그것이 緊張母音일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로 그 轉移音이 [y]이므로 二重母音化規則 (159)에 비추어 [-back]의 資質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ɔ/일 수는 없다. 새 規則을 피하자면, 그 基底母音은 [+tense, -back, +low, +round]의 資質을 가질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은 다름아닌 /æ/인 것이다. 예를 들어 表面形 [bɔy]는 基底形 /bæ/로부터 (169)가 보여주는 과정을 통해 生成된다.

$$(169) \begin{array}{ll} /bæ/ & \\ b\bar{\alpha}y & (159) \\ \text{---} & (168) \\ b\text{ɔ}y & (166) \\ [b\text{ɔ}y] & \text{Opt} \end{array}$$

지금까지 설정한 規則들의 상호 적용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170)에 몇가지 導出예를 들어 놓았다.

(170) /divīn/	/serēn/	/profæn/	
divīyn	serēyn	profæyn	(159)
divæyn	serīyn	profēyn	(168)
divāyn	—	—	(166)
/væri+ i+ty/	/mænæger+i+æł/	/æłgebræ+ic/	
væri i ty	mænægēr ī æł	æłgebæ ic	(158)
væriy i ty	mænægēyr i æł	æłgebræy ic	(159)
væræy i ty	mænægīyr i æł	æłgebrēy ic	(168)
værāy i ty	—	—	(166)
/harmōn+y/	/harmōn+i+ous/	/harmōn+ic/	
harmōn y	harmōn i ous	harmōn ic	(117)
	harmōn i ous		(158b)
	harmōwn i ous		(159)
	harmōwn i ous		(168)
/verb+ōs/	/verb+ōs+i+ty/		
verb ōs	verb ōs i ty		(117)
	verb ōs i ty		(145)
verb ōws			(168)
	verb ās i ty		(137)

2.6. 母音前 y插入規則

아직까지 *pure*, *accuse* 등에서 볼 수 있는 [yūw]의 생성을 설명하지 못했다. 앞서 살펴본 [ɔy]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yūw]도 하나의 基底母音에서 導出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yūw]의 마지막 [w]는 二重母音化規則 (159)에 얻어지는 것이라고 하면, 母音 앞에 [y]를 插入하는 規則이 필요하게 된다. 그 規則의 모양을 알아보기 위해 우선 (171)을 보자.

(171) /hæbit+u/
/perpet+u/
/pro+verb+i/
/pre=sīd+ent+i/

(171)의 /u/와 /i/는 添辭라고 불러주는 것으로서, *habit—habitual—habituate*, *perpetual—perpetuity—perpetuate*, *proverb—proverbial* 등에서 볼 수 있듯 派生語를 만들 때 필요한 것이다.

/u/와 /i/의 두 添辭중에서 /i/는 정규적인 변화를 보여준다. 즉 強勢가 없을 때에는 緊張化規則 (158)에 의해 [iy]로 나타나며, 強勢가 올 때에는 *propriety*에서 보듯 母音推移規則 (168)에 의해 [āy]로 나타난다.

여기에 비해 /u/는 強勢가 있거나 없거나 간에, *ambiguous*, *ambiguity*에서 보듯 항상 [yūw]로 나타난다. 우리는 앞서 (167)에서 緊張母音이 母音推移規則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backness와 roundness가 같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다시 말해, /i/나 /ū/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의母音이 그 뒤에 二重母音化規則(159)에 의해 [w]가 挿入되는 것을 알고 있다. 規則(159)에 의하면, 선행하는母音이 [+back]의 資質을 가지면 [w]가, 반대로 [-back]의 資質을 가지면 [y]가 挿入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母音이 [i]임을 알 수 있다.

基底母音 /u/가 規則(172)에 의해 [i]가 되며, 規則(173)에 의해 그 앞에 [y]가 挿入되고, 다시 二重母音化規則(159)에 의해 [i]가 [iw]가 되며, 이 [i]는 規則(174)에 의해 다시 [ū]가 된다.

$$(172) u \rightarrow \begin{bmatrix} +tense \\ -round \end{bmatrix} / \text{---} C_0 V$$

$$(173) \phi \rightarrow y / \text{---} \begin{bmatrix} V \\ +tense \\ -round \\ +high \\ +back \end{bmatrix}$$

$$(174) i \rightarrow [+round]$$

(175)가 이들 規則들의 실제 적용을 보여주고 있다.

(175) /æmbig+u+ity/	
æmbig+i+ity	(172)
æmbig+iw+ity	(159)
æmbig+yiw+ity	(173)
æmbig+yūw+ity	(174)
[æmbigyūwity]	Opt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英語의 모든 二重母音은 그 基底에서는 單母音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각각 (176)에 표시된 것과 같이 導出된다.

(176)	e	æ	i	o	ɔ	ū
	↓	↓	↓	↓	↓	↓
	iy	ey	ay	ūw	ōw	āw

한편 基底의 /ā/는 그대로 [ā]로 구현되며, /æ/는 [ɔy]로 구현된다. 끝으로 $\text{---} C_0 V$ 의 환경에서 나타나는 /u/는 [yūw]로 나타난다.

2.7. 軟口蓋音軟化規則

지금까지 다루어 온母音에 관한 規則들 만큼 다양하지는 않으나, 子音에도 몇가지 중요한 規則들이 있다. 이를테면 軟口蓋音軟化規則(Velar Softening Rule)이 그 하나다. 다음 (177)과 (178)의 예들을 보자.

(177) A	B
<i>critic</i>	<i>criticism</i>
<i>critical</i>	<i>criticize</i>
<i>medical</i>	<i>medicine</i>
(178) <i>regal</i>	<i>regicide</i>
<i>rigor</i>	<i>rigid</i>
<i>analogous</i>	<i>analogize</i>

(177)은 [k]~[s]의 對應을, 그리고 (178)은 [g]~[j]의 對應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對應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177)과 (178)을 잘 관찰해 보면, (177B)과 (178B)에서는 [s]와 [j]가 모두 [i]나 [äy] 앞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들은 그 基底에서 /i/나 /i/의 모습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178)의 [g]와 [j]의 對應을 설명하기 위해 A와 B 모두의 해당 子音의 基底形이 /g/라고 한다면, (179)와 같은 規則이 필요할 것이다.

$$(179) \ g \rightarrow \begin{bmatrix} +\text{cor} \\ +\text{strid} \end{bmatrix} / \text{---} \begin{bmatrix} -\text{cons} \\ +\text{high} \\ -\text{back} \end{bmatrix}$$

한편 (177)의 [k]와 [s]의 對應을 規則(180)에 의해 얻을 수 있다.

$$(180) \ k \rightarrow \begin{bmatrix} +\text{cor} \\ +\text{strid} \\ +\text{ant} \\ +\text{cont} \end{bmatrix} / \text{---} \begin{bmatrix} -\text{cons} \\ +\text{high} \\ -\text{back} \end{bmatrix}$$

規則(181)은 이들 두 規則, (179)와 (180)을 縮約하여 얻어진 것이다.

$$(181) \ \begin{bmatrix} -\text{cont} \\ -\text{ant} \\ -\text{cor} \\ \langle -\text{voice} \rangle \end{bmatrix} \rightarrow \begin{bmatrix} +\text{cor} \\ +\text{strid} \\ \langle +\text{ant} \rangle \\ \langle +\text{cont} \rangle \end{bmatrix} / \text{---} \begin{bmatrix} -\text{cons} \\ +\text{high} \\ -\text{back} \end{bmatrix}$$

(182)가 規則(181)의 적용을 보여준다.

(182) /kritik+æɫ/	/kritik+iz/	
—	kritis+iz	(181)
kritis+æɫ	kritis+iz	(117)
—	kritis+iyz	(159)
—	kritis+äyz	(162)
kritis+əl	kritis+äyz	(119)
[kritikəl]	[kritisäyz]	Opt

한편 (183)의 예들은 規則(181)이 /i/나 /i/ 앞에서 뿐만 아니라 /e/나 /e/ 앞에서도 적용되어야함을 보여주고 있다.

(183) A	B
<i>recite</i>	<i>excite</i>
<i>recede</i>	<i>exceed</i>
<i>receive</i>	<i>succeed</i>
<i>recess</i>	<i>success</i>

만약에 문제의 -c가 그 基底에서 /s/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이미 앞서 §1.6에서 (183A, B)가 모두 re=cite, ex=cite 등, =를 내포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이것과 관련해서 s를 有聲音化하는 (89)와 같은 規則이 있음을 알았다.

$$(89) s \rightarrow [+voice] / V = \text{---} V$$

만약에 (183)의 문제의 子音들의 基底形이 /s/라면, re=cite는 規則(89)에 의해 *[rizáyt]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基底形이 /k/라고 생각할 때, 그리고 規則(89)가 規則(181)보다 앞서 적용된다고 할 때, 우리는 規則(181)에 의해 올바른 表面形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規則(181)을 다음과 같이 바꿔써야 한다.

$$(184) \begin{bmatrix} -\text{cont} \\ -\text{ant} \\ -\text{cor} \\ \langle -\text{voice} \rangle \end{bmatrix} \rightarrow \begin{bmatrix} +\text{cor} \\ +\text{strid} \\ \langle +\text{ant} \rangle \\ \langle +\text{con} \rangle \end{bmatrix} \text{---} \begin{bmatrix} -\text{cons} \\ -\text{back} \\ -\text{low} \end{bmatrix}$$

(183B)의 *excite*의 基底形을 /eks=kit/라고 할 때, 우리는 規則(184)를 적용한 導出形 eks=sit에서 表面形 [iksáyt]를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規則이 필요하다.

$$(185) \begin{bmatrix} C \\ \alpha F \end{bmatrix} \rightarrow \phi / \begin{bmatrix} C \\ \alpha F \end{bmatrix} = \text{---}$$

2.8. s有聲音化規則

다음으로 언급해야 할 規則은, s의 有聲音化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이미 規則(89)에서 s의 有聲音化의 필요를 보았다. 그러나 (186)의 예들은 規則(89)를 더 확장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 준다.

(186) A	B
<i>éxit</i>	<i>exist</i>
<i>âux</i>	<i>auxiliary</i>
<i>exhibition</i>	<i>exhibit</i>
<i>éxecute</i>	<i>executive</i>
<i>éxercise</i>	<i>exert</i>

(186A)에서는 x가 [ks]로, 그리고 (186B)에서는 [gz]로 발음되고 있다. (186A)와 (186B)의 차이는, 전자의 경우 x앞에 오는 母音에 強勢가 놓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뒤에 오는 母

음에 強勢가 놓인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반영하는 規則은 (187)과 같이 될 것이다.

(187) s→[+voice]/Vk—V̇

2.9. 摩擦音化規則

영어에는 (188)의 예에서 보듯 基底의 /ts/를 [s]로 바꾸는 현상이 있다. *Partial* 등의 경우에는 이 [s]가 뒤에서 언급될 口蓋音化規則(200)에 의해 表面에서는 [š]로 나타난다.

(188)	A	B
	<i>hypocrit</i>	<i>hipocrisy</i>
	<i>diplomat</i>	<i>diplomacy</i>
	<i>resident</i>	<i>residency</i>
	<i>controvert</i>	<i>controversy</i>
	<i>democrat</i>	<i>democracy</i>
	<i>efficient</i>	<i>efficiency</i>
	<i>pirate</i>	<i>piracy</i>
	<i>president</i>	<i>presidency</i>
	<i>obstinate</i>	<i>obstinacy</i>
	<i>part</i>	<i>partial</i>

(188)의 交替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189)와 같은 摩擦音化規則(Spirantization Rule)이 필요하다.

$$(189) \left[\begin{array}{c} -\text{son} \\ +\text{ant} \\ +\text{cor} \\ -\text{voice} \end{array} \right] \rightarrow \left[\begin{array}{c} +\text{cont} \\ +\text{strid} \end{array} \right] / \text{---} + \left[\begin{array}{c} -\text{cons} \\ -\text{back} \\ +\text{high} \\ -\text{stress} \end{array} \right] \left\{ \begin{array}{l} \text{V} \\ \# \end{array} \right\}$$

規則(189)에서 /t/와 뒤에 오는 /i, y/ 사이의 形態素境界가 필요한 것은 (190)의 예들을 보면 알 수 있다.

(190) *safety, variety, reality, serenity, gaiety*

이들은 形容詞에다 /+ti/(/safe+ti/)나 /+iti/(/serēn+iti/) 등의 語尾를 붙여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할 때, /t/와 /i/ 사이에 形態素境界가 없으므로, 規則(189)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規則(189)는 (191)의 예가 보여주듯, /t/ 뒤에 /i/나 /y/뿐만 아니라 /+ε/가 올 때에도 적용됨을 알 수 있다.

(191)	A	B
	<i>confident</i>	<i>confidence</i>
	<i>resident</i>	<i>residence</i>

따라서 規則(189)의 環境은 (192)처럼 수정되어야 한다.

$$(192) / \text{---} + \left[\begin{array}{l} -\text{cons} \\ -\text{back} \\ -\text{stress} \end{array} \right]$$

한편 (193)의 예들은 規則(189)가 形容詞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193) *hearty, guilty, mighty, thrifty, weighty*

이들 形容詞의 語尾는 /+i/가 아니라 /#i/인듯 싶다.

(194)의 예들도 規則(189)에 대한 예외처럼 보인다.

(194) *difficulty, modesty, honesty, entreaty*

形容詞를 名詞로 轉成하는 語尾가 /+i/가 아니라 /+ty/일 것이라는 것은 *loyalty*나 *royalty* 등에서 볼 수 있다. 그리하여 *difficulty*의 基底形이 /difikult+ty/라면 規則(189)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t/가 [s]로 바뀌는 현상만 보아왔으나, (195)에서 보듯 /d/가 y 앞에서 [z]로 바뀌는 현상도 있다. 이 [z]는 나중에 口蓋音化規則(200)에 의해 [ʒ]로 바뀌게 된다.

(195) A	B
<i>decide</i>	<i>decision</i>
<i>collide</i>	<i>collision</i>
<i>divide</i>	<i>division</i>
<i>deride</i>	<i>derision</i>

(195)의 交替는 規則 (196)에 의해서 얻어질 수 있다.

$$(196) \left[\begin{array}{l} -\text{son} \\ +\text{ant} \\ +\text{cor} \\ +\text{voice} \end{array} \right] \rightarrow \left[\begin{array}{l} +\text{cont} \\ +\text{strid} \end{array} \right] / \text{---}y$$

그런데 우리는 (195B)에서 摩擦音化하는 子音 뒤에 오는 [y]가, 그 基底에서 /i/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 *decision*의 強勢는 **décision*의 잘못된 모습을 띠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197)과 같은 規則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197) i \rightarrow y / \left[\begin{array}{l} C \\ +\text{cor} \end{array} \right] + \text{---}V$$

規則(189)와 規則(196)을 수정된 環境(192)를 고려하면서 縮約하면 (198)과 같이 된다.

$$(198) \left[\begin{array}{l} +\text{son} \\ +\text{ant} \\ +\text{cor} \\ \alpha \text{ voice} \end{array} \right] \rightarrow \left[\begin{array}{l} +\text{cont} \\ +\text{strid} \end{array} \right] / \text{---} + \left[\begin{array}{l} -\text{cons} \\ -\text{back} \\ -\text{stress} \\ \beta \text{ syll} \end{array} \right] \left\{ \begin{array}{l} V \\ \# \end{array} \right\} : \text{if } \alpha = +, \text{ then } \beta = -$$

2.10. 口蓋音化規則

우리는 앞서 (188)에서 *partial*의 /t/가 摩擦音化規則(198)에 의해 [s]로 바뀌지만 表面에서는 [š]로 나타나는 것과, (195)에서 *collide*의 /d/가 역시 規則(198)에 의해 [z]로 바뀌면서 결국 表面에서는 [ž]로 나타나며, 이것은 결국 口蓋音化規則(Palatalization Rule)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언급했었다. 口蓋音化란 (199)에서 보여주듯, /t, d, s, z/가 [y] 앞에서 각각 [č, ĵ, š, ž]로 바뀌는 현상을 말한다.

$$(199) \begin{bmatrix} t \\ d \\ s \\ z \end{bmatrix} \rightarrow \begin{bmatrix} \check{c} \\ \check{j} \\ \check{s} \\ \check{z} \end{bmatrix} / \text{---}y$$

이것을 規則化하면 (200)과 같이 된다.

$$(200) \begin{bmatrix} \text{-son} \\ \text{+cor} \end{bmatrix} \rightarrow \begin{bmatrix} \text{-ant} \\ \text{+strid} \end{bmatrix} / \text{---} \begin{bmatrix} \text{-voc} \\ \text{-cons} \\ \text{-back} \end{bmatrix} \begin{bmatrix} \text{-cons} \\ \text{-stress} \end{bmatrix}$$

規則(200)은 基底의 /t, d, s, z/에 적용되기도 하며, 또는 摩擦音化規則(198)에 의해 /t/나 /d/로 부터 생성된 [s]나 [z]에도 적용되며, 끝으로 軟口蓋音軟化規則(184)에 의해 /k/로부터 생성된 /s/에도 적용된다. 우선 基底의 /t, d, s, z/에 적용된 예를 보면 (201)과 같다.

- (201) (a) *actual, factual, ritual*
- (b) *gradual, residual, modular*
- (c) *impression, sensual, official*
- (d) *pleasure, usual, enclosure*

두번째로, 基底의 /t, d/가 摩擦音化規則(198)에 의해 [s, z]로 바뀌었다가 口蓋音化된 예는 (202)와 같다.

- (202) (a) *controversial, prohibition, infectious*
- (b) *decision, explosion, conclusion*

마지막으로 基底의 /k/가 軟口蓋音軟化規則(184)에 의해 [s]가 되었다가 口蓋音化한 예는 (203)과 같다.

- * (203) *musician, logician, tactician*

規則(200)의 環境에서 제일 마지막 母音에는 強勢가 없는 것으로 규정지어져 있다. y에 후속하는 母音에 強勢가 오지 말아야 하는 것을 (204)의 예들이 보여주고 있다.

- (204) *tune, fortuitous, endure, ensue, resúme, presúme, pursúit*

口蓋音化는 [y]에 의해 생기는 것이지만 (205)에서 보듯이 [y]는 脫落하고 만다.

(205) *pressure, actual, issue*

즉, 이들은 각각 그 表面形이 *[préšyər], *[ækčyūwəl], *[íšyūw]가 아니라 [préšər], [ækčūwəl], [íšūw]이다. 이를 위해 (206)과 같은 y脫落規規이 필요하다.

(206) $\begin{bmatrix} -\text{voc} \\ -\text{cons} \end{bmatrix} \rightarrow \phi / \begin{bmatrix} -\text{son} \\ +\text{cor} \\ -\text{ant} \end{bmatrix} \text{---}$

Prolegomena to English Phonology (II)

Sang-buom Cheun

ABSTRACT

In the second part of my paper, the noncyclic word-level phonology of English has been treated. The present sequel consists of two parts: rules affecting vowels and those affecting consonants. In the former part, the formulation of five vowel rules (Laxing Rule, Tensing Rule, Diphthongization Rule, Vowel Shift Rule) is discussed, while in the latter part, four consonant rules (Velar Softening Rule, *s*-Voicing Rule, Spirantization Rule, Palatalization Rule) are discussed.